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4월 22일 금요일 (음 3월 16일) 제154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도 이차전지 사업 '활력'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
산자부 지원사업 선정
내년부터 국비 100억 지원

전북도에 이차전지 사업이 활력을 띠고 있다.

2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산업자원 통상부(이하 산자부)의 2017년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전북도의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은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음극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구축해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지방비 78억 등 총 181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차전지 4대 핵심소재는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으로 나뉜다. 이 중 음극재의 우리나라 경쟁력은 기술력과 가격경쟁 등의 분야에서 일본과 중국에 뒤처지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도의 탄탄한 탄소산업을 바탕으로 탄소섬유 중심의 탄소산업을 음극재의 주원료인 흑연과 활성탄으로 확대시켜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을 이끈내르으로써 음극재 시장에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도에서 유치할 수 있었던 비결은 탄소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의 강력한 의지와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된 완주군과의 협업, 전북테크노파



“전주에 남겠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CC 이지스 농구단으로부터 연고지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크의 뛰어난 기업지원 능력, 한국탄소 융합기술원이 보유한 탄소분야의 우수한 연구능력이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도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 '전북 중심 이차전지 핵심소재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세우고 '탄소 기반 음극재 제조 및 분석 인프라 구축'과 '음극재 성능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기업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탄소기반 음극재 제조 및 분

석 인프라 구축' 사업은 총 168억원이 투입돼 흑연·활성탄을 기반으로 하는 음극재 제조 설비 등을 위한 총 46대의 장비가 완주군 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구축될 전망이다.

도는 2021년까지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현재 도내에 있는 순수 음극재 기업 6개사가 20개사로 증가하고 이차전지 부품 관련 기업은 190개사에서 300개사로 증가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인력도 5천여명이

상 대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완주군, 전북TP,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협력으로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탄소산업과 에너지산업간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향후 자동차, 조선·해양, 건설·기계부품산업으로도 탄소산업을 확장시켜 4대 전략기지를 차근차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중 오늘 북핵문제 전반적 협력 방안 논의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서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는 2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동한다고 외교부가 21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에서 중국 측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동은

지난달 18일 베이징 회동 이후 한 달 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방안과 도발 이후 후속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6자회담 당사국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전날(20일) 서울에서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과 함께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도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 간 고위급 전략협회가 있었으며, 이날 베이징에서는 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동이 개최된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은 "북한이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대북(對北) 압박 공조 강화 의지를 거듭 천명한 바 있다.

외교부는 미·중 협회에 이어 한·중 협회가 연속으로 개최되면서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중 3자 협력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중국 측도 3자 협회에 대해 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한·미·중 3자 협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게 외교부의 판단이다.

조 대변인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회에 앞서 오늘 베이징에서 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회가 개최된다는 점에서 이번 방중(訪中)은 북핵 문제에 대해 한·미·중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과는 별개로 한·중 간 해양경계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회가 22일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전했다. 박철주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의 양사오우 중국 외교부 황해업무대사가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전북도민체전 29일 군산서

내달 1일까지... 35개 종목 1만여명 참가

'2016 전북도민체육대회'가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군산에서 열린다.

21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올해 도민체육대회는 오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군산 월명종합운동장 등 군산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도민체전은 생활체육회와 엘리트체육이 통합 후 첫 개최되는 큰 규모의 대회로 학생부와 청년부, 일반부로 나뉘어 치러진다.

총 35개 종목에 약 1만명의 선수단이 14개 시·군의 명예를 걸고 선전을 다지게 된다.

개회식은 29일 오후 6시 군산 월명종합운동장에서 열리며, 시·군별 특색을 살린 선수단 입장식과 도민체육대회의 꽃인 성

화 봉송이 '같이 함께 Together'의 테마로 점화될 예정이다.

종합순위의 경우 종전 일반부 채점으로 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학생부 점수를 종합체점에 포함해 종합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또 경기는 시·군 분리대항전으로 진행되며, 기록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 또는 리그전 후 토너먼트 경기로 실시해 등위 순위전은 실시하지 않는다.

모든 선수는 1인 1종목 외에는 출전할 수 없지만 육상과 수영 사이클 종목은 제외다.

한편 폐회식은 1일 오후 5시부터 화합과 열정 그리고 추억과 우정의 테마로 군산 월명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군산=문정근 기자

여야, 20대 국회의원 자리 놓고 충돌

“우리당에서 말아야 제격”

새누리 "관례상 여당에서"
더민주 "총선 민의에 따라 국민의당과 함께 논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국회의장직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관례적으로 여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더민주는 국회가 논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사실상 원내 1당인 더민주 출신이 되는 게 맞다는 논리를 폈다.

먼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1일 TBS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홍입니다'에 출연, "국회의장은 관례적으로 다수 정당이면서도 여당이 말아야 한다"면서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면서 3부 요인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물론 국회의원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정당보다는 앞으로 개인의 성품과 명망이 더 큰 결정력을 좌우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의장 문제를

앞으로 3당이 어떤 모양새로 우리 국민에게 보이는가, 하는 것도 여의도 정치의 새로운 정치 지형을 예단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방송에 출연한 더민주 안민석 의원은 "총선 민의에 따라서 국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논의해서 어떤 분을 선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민이 현 정부의 독재를 견제하는 회초리를 내려쳤다. 그러면 새누리당도 이런 국민의 명령을 겸허히 수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어차피 이것은 분회의장에서 다수의 투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 측 국회의장 선출) 피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에서 굳이 안 될 일을 가지고 때를 쓰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저희가 의장을 맡아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저희에게도 주는 통 큰 정치를 새누리당에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토·일요일 신문 읽는다.”

아이에게
꿈을 읽어주세요

지금,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1:1 책 읽어 주기가 시작됩니다.
사서와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꿈이 자라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